

# 시속 150km 달리던 鐵馬, 광양 들어서면 속도 절반으로 ‘뚝’

## 북선전철 달리고 싶은 경전선 전라도 구간

### 3시간 4분 VS 1시간 34분... 운행 시간도 두배 차이 송정~순천 3년째 예타... 차별 없는 예산 투입 필요

호남지역에 대한 국가기반시설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경전선의 경상도 구간은 이미 복선화와 전철화를 마친 상태로, 북선화는커녕 전철화도 지지부진한 전라도 구간과 극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일반철도인 전라도 구간으로 인해 전철화를 끝낸 경상도 구간은 예산만 허비한 채 장기간 일반철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정치권 등이 나서 다른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더딘 호남지역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차별 없는 예산 투입과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촉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간 별 격차 극심...이용자 없을 수밖에  
전라도와 경상도를 잇는 경전선(광주송정~삼랑진)의 역사는 일제와 밀접하다. 일제가 쌀과 면화를 반출시키기 위해 곡창지대인 전라도와 경상도를 연계하면서 동시에 대일본청구인 부산항과 여수항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계획한 것이다. 1905년 5월 26일 삼랑진~마산, 1922년 7월 1일 송정~순천, 1923년 12월 1일 마

산~진주 등이 일제강점기 하에, 진주~순천 간이 해방 이후 1968년 2월 7일 개통하면서 경전선이 완성됐다. 하지만 이후 정부 투자는 경산도 구간과 전라도 구간을 차별하며 진행됐다.

운행 시간을 살펴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다. 광주송정~보성 1시간54분, 보성~순천 1시간, 순천~광양 10분 등 전라도 구간의 총운행시간은 3시간4분이다. 이에 반해 진주~마산은 48분, 마산~삼랑진 46분 등 경상도 구간은 1시간34분이다. 경산도 구간은 복선화를 하면서 선형을 썼으나 전라도 구간은 구불구불한 단선이기 때문이다. 경산도에서는 일반철도가 시속 130~150km를 낼 수 있지만, 전라도에서는 그 절반도 내지 못하는 구간이 있다. 운행 시간의 격차는 이용자의 격차로 이어지면서 정부가 원하는 경제성이 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경상도 2019년 북선전철 마무리, 전라도 2026년에도 난망=보성~목포, 부전~마산 등 기존 경전선에 신규사업까지 포함된 남해안철도는 전라도 구간으로 인

해 10년 후인 2026년에도 전철의 완전개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을 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을 통과하지 못해 언제 예산이 반영될지 모르는 운명이기 때문이다.

각 구간 별로 살펴보면 2조304억원이 투입되는 광주송정~보성~순천(104.8km) 구간 단선 전철화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3년째 예비타당성조사만 벌이고 있다. 제3차 계획에 포함됐지만,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지 못한 상태다. 8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2018년부터 예산이 투입된다고 해도 2026년에야 완공을 볼 수 있다. 3946억원짜리 순천~광양(10.9km) 북선전철화 공사는 2012년 완공됐으며, 1조3886억원의 신규사업인 보성~목포(79.5km) 단선 전철화사업은 2002년부터 올해까지 고작 1444억원이 투입돼 2020년 공사를 마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광양~진주(51.5km)의 북선철도사업은 모두 1조1454억원이 투입되며 지난해까지 모든 예산이 투입됐지만, 북선전철 예비타당성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상도 구간인 삼랑진~마산~진주(95.5km) 북선전철화사업은 지난 2012년 1조8720억원을 들여 완료했으며, 신규사업인 부전~마산(50.8km) 북선전철화사업은 1조4909억원으로 오는 2019년 개통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오른쪽)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우상호 “5·18특별법 8월 임시국회서 당론 채택”

### 국민의당 당론 발의 압박속 이개호 의원 일반 법안 접수...능력 처리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당양·장성·영광·함평) 의원이 20일 5·18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더민주의 ‘능력 처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이 5·18 특별법 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더민주 지도부는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2주를 기다렸으나 당론 발의를 이루지 못하고 일반 법안으로 국회 사무처에 개정안을 접수시켰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날조, 비방하는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 사실의 전신나 게시

등도 처벌받도록 했다. 또,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단체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식에서 제창하도록 했다.

하지만, 더민주가 5·18 특별법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당론 추진과 관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민주가 호남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8월 임시국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내일 야 3당이 공동으로 5.18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속히 당론을 정해서 5.18 정신을 함께 계승 발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달 1일 5·18 민주화운동의 왜곡 및 날조 행위를 처벌하고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있도록 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소속 의원들이 전원 공동 발의에 참여, 당론 발의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저녁 호남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8월 임시 국회에서 당론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5·18 특별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5·18 특별법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개각에서 박승춘 보호처장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그 시점을 택해 당론 발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동욱기자 tuim@

## 마티스가 사랑했던 니스 어찌다가...



(162) 니스

프랑스 동남부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길게 펼쳐진 해변을 프랑스어로 코트 다 쥐르(c?te d'azur)라 한다. ‘쪽빛의 해안’이라는 뜻의 이 해변은 칸느, 앙티브, 방스, 모나코, 니스 등 이름만 들어도 아름다운 풍경이 연상되는 도시들이 줄지어 있다.

수년 전 미술관 투어를 위해 들렀던 니스의 해변에서 쪽빛의 질고 연한 다채로운 색상의 스펙트럼을 마주했던 감동은 지금도 선연하다.

어떤 테라가 끔찍하지 않겠는가마는 얼마 전 니스에서 자행된 테러를 다급하게 보도하는 뉴스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니스는 야만적인 살상과 폭력, 불안함의 정서로 떠올려야 할 도시가

아니기에 더욱 안타까웠던 것 같다. 아름다운 도시 니스는 피카소를 비롯해 샤갈, 라울 뒤피, 마티스 등 많은 화가들의 사랑을 받았던 곳이기도 하고, 이 도시에 매료돼 여생을 보낸 예술가도 많았다. 코트 다 쥐르 일대의 미술관으로 앙티브의 피카소미술관을 비롯하여 니스의 마티스미술관과 샤갈미술관은 특히 유명하다.

니스에서 37년간 살았던 앙리 마티스(1869~1954)의 니스 사랑은 각별해서 그의 작품 가운데 다수는 지중해 특유의 감성으로 활기와 환희가 넘쳐흐른다.

마티스의 ‘니스의 실내’(1924년 작)는 빨강과 청색 줄무늬 식탁보 위에 파인애플, 오렌지와 레몬, 꽃무늬 도자기병과 꽃병 등의 정물을 나열하여 화사한 실내 분위기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햇살이 비치는 바깥 풍경을 드러내지 않게 강조하려는 지 창문의 커튼을 살짝 걷어 올려 우리들의 시선이 창문 너머로 향하게 하는 것 같다.

자신의 화실을 끊임없이 작품의 모티



마티스 작 '니스의 실내'

브로 삼았고 화가의 화실을 어떻게 장식해야 하는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마티스답게 이 작품에도 화가의 호흡이 스며있다.

화실에겐 정작 사람도 없고 모델도 없지만 저 멀리 거울 속에 화가의 모습이 작게 비친다. 그림 안의 그림을 보여 주려는 의도에서 화가는 캔버스 밖에서 이 모든 정경을 조율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 2野 ‘우병우 의혹·친박 공천 개입’ 총공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0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과 새누리당 친박계 실제 공천개입 논란에 대해 “총체적 난국”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두 야당은 “정권의 축인 당정청이 모두 무너지면서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홍보비 파동과 특권 논란 등으로 그동안의

수세 국면을 벗어나 정국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맞아 정치권이 이야기하는 충고를 외면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국민을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은 빨리 버리는 게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우 민정수석이 자

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민정수석을 보호하려다 정권까지 흔들릴 수 있다”며 “모든 혼란이 당정청에서 나온다. 전면 쇄신과 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우병우 뇌관’을 제거하고 전면개각을 해야만 ‘레임덕 폭탄’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승용 비대위원은 “당정청이 무너지고 있다. 지금이 국정쇄신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믿을 수 있는 파트너,  
유한김벌리와 함께  
새로운 비전을 준비해 보십시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주관한  
'2016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에서 3위에 선정된  
유한김벌리 B2B사업부에서 위생/산업용품을  
전문적으로 유통할 대리점을 새롭게 모집합니다.

**유한김벌리 위생/산업용품 전문대리점 모집**

- 1.모집지역: 전국
- 2.모집기간: 모집 완료시까지
- 3.취급품목
  - 위생용품: 점보롤 화장지, 종이 핸드타올, 물비누, 방향제, 손소독제, 냅킨 등
  - 산업용품: 와이퍼, 1회용 보호복, 방진마스크, 보안경, 청력보호구
- 4.모집절차
  - 신청서 접수(이메일) → 서류심사 → 면접 → 계약
  - 신청서(당사제공양식): 지원서, 자기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1부
- 5.문의 및 신청서 접수처
  - 문의: 전화 1588-5332
  - 홈페이지 www.kr.kcprofessional.com
  - 신청서 접수처: sjkim@y-k.co.kr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해 드리지 않습니다.